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3> 화두 공부가 무리익었다면

이 단락에서는 <선가귀감> 21장에 나오는 '타성일편(打成一片)'과 '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서산 스님의 '업' 풀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工夫 若打成一片則 縱今生透不得 眼光落地之時 不為惡業所牽
화두 공부가 무리익었다면 설사 금생에 깨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쁜 업에 끌려가지는 않으리라.

한문 원문에 나오는 타성일편(打成一片)에서 '타(打)'는 '성(成)'이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뜻을 강조하는 접두사로서 '타성(打成)'은 '만들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일편(一片)'은 '나무 파편 한 조각'으로 풀이되

[長短好惡 打成一片 ——拈來 更無異見] 라고 하였고, 제17칙 평창에서는 "내가 수십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었다[我四十年方打成一片]"고 하였으며, <무문관> 제1칙에서 "오래 오래 무르익어 자연 안팎으로 한 덩어리가 되니, 마치 병어리가 꿈꾼 것과 같아서 오로지 자신의 체현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久久純熟 自然內外 打成一片 如夢子得夢 只許自知]"고 한 내용들이 있다.

본문의 '안광락지(眼光落地之時)'

타성일편, 화두와 하나 되는 것 주객이 사라질 때 지혜 드러나

는 줄여서 '안광락시(眼光落時)'라고 하며 '사람이 마지막 눈빛을 땅에 떨어뜨릴 때'라는 뜻으로서 사람의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선요>에는 이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설사 금생에 화두를 풀이 삼키지 못하고 죽게되어 온갖 악도 가운데 놓일지라도, 어떤 경계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를 앓으니 거기에 거리길 데라고는 없다[假使今生吞透不下 眼光落地之時 縱在諸惡趣中 不驚不怖 無拘無縛]'는 내용이 있다.

나쁜 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인데, '화두와 하나가 된 사람'은 선악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고 있으므로 어떤 경계에도 놀라거나 두려워 할 일이 없다. 여자에게서는 열라대왕이나 저승사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선요>에서 '설령 열라대왕이나 모든 귀신들을 만나더라도 그들 모두 두손 모아 공경하리니, 무엇 때문인가? 화두

침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야지혜의 부사의(不思議)한 위신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든 업이 있더라도 마침내 반야의 힘이 더 수승하니, 마치 금강의 불기둥과 같아서 돌이도 풀리지 않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業者 無明也 禪者 般若也 明暗不相敵 理固然也

업(業)이란 어두운 무명(無明)이요 선(禪)이란 밝은 지혜이다. 어두운 무명과 밝은 지혜가 서로 맞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업'은 범어 'kaman' 팔리어 'kamma'를 번역한 말인데 조작한다는 뜻이다. 음역(音譯)으로는 '갈마(羯磨)'라고 한다. 그 뜻은 행위, 행동, 작용, 의지 등으로서 몸과 마음의 활동 전체를 말한다. 보통 신구의 삼업이라고도 하는데, '업'에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 있다. 이 사상은 미래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 주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도덕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업(業)을 불교에서는 무명(無明)이라고 한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일에는 분별하는 주체와 대상이 있게 되는데, 이런 주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무명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명(無明)'은 범어 'avidyā' 팔리어 'avijjā'의 번역으로서 번뇌의 또 다른 이름인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무명에서 온갖 번뇌가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한다. 이 무명에서 모든 경계나 그 도리의 공성(空性)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의 모든 업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무명이 그 뿌리가 된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관혼에서는 화두를 참구 화두와 한 덩어리가 되어 주객(主客)이 사라지는 깨달음으로 빛나는 반야지혜를 드러내야 한다고 한다. 어두운 무명과 밝은 지혜가 서로 맞설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장로(長老)

언젠가 재가불자 두 분이 '장로(長老)'란 말을 놓고, '불교용어다, 개신교 용어다'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불교용어다'고 설명하자 한 분이 '왜 그러냐?'고 되물더군요. 개신교서 주로 사용하는 '장로'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장로는 본래 범어로, 한역하면 '아유솔만(阿耨率滿)

입니다. 불교사전에는 '존자(尊者)' 또는 '구수(具壽)'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덕이 높고 범람이 많은 비구를 가리키는 말로, 젊은 비구가 나이든 비구를 높여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개신교 쪽에서 장로라는 용어를 '독자지'하고 있습니다. 1893년 선교사들이 '장로회선교공의회'를 조직하면서 개신교 쪽에서 장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불교계에서 장로란 말의 흔적을 찾아보면, 1962년 선포된 조계종 최초 종헌에 있습니다. 이 종헌에서는 '장로원(長老院)'이란 말이 있는데, 당시 종법기구였습니다. 지금은 불교계에서는 장로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4강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제6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心, 佛告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為實.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心. 須菩提, 如來悉知悉見, 是諸衆生, 得如是無量福德.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我人相, 衆生相, 壽者相, 無法相, 亦無法相.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則為着我人衆生壽者. 若取法相, 則着我人衆生壽者. 何以故, 若取非法相, 即着我人衆生壽者. 是故, 不應取法, 不應取非法.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

언해
수보리가 부처께 사뢰되, "세존하! 자못 중생이 이 같은 말씀 장구(章句) 들잡고, 실(實)한 신(信)을 낚아갔으니, 하물며 비(非)이요?"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일러시되, "이 말 하지 마라. 여래 멸(滅)한 후(後) 500세에 지계(持戒)하며 복(福) 닦을 이 있으면, 이 장구에 능히 신(信) 내리니, 이로 실(實) 삼아라. 이 사람은 일불(一佛) 이불(二佛) 삼사오불(三四五佛)에 선근(善根)을 심은 것이 아니

라, 이미 무량천만불(無量千萬佛)에 많은 선근을 심어, 이 장구를 들고, 한 녀(念)에 이르러, 좋은 신(信)을 내는 것을 반드시 알지 마라. 수보리야! 여래가 다 알며 다 보나니, 이 많은 중생이 이같은 무량 복덕을 득(得)할 것을 어찌어노? 이 많은 중생이 다시 이상(我相)과 인상(人相)과 중생상(衆生相)과 수자상(壽者相)이 없으며, 법상(法相) 없으며, 또 비법상(非法相) 없으리. 어찌어노? 이 많은 중생이 만약 마음에 상(相)을 취하면, 곧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에 착(著)하리며, 만약 법상(法相)을 취하면 곧 아, 인, 중생, 수자에 착(著)하리니, 어찌어노? 만약 비법상(非法相)을 취하면 곧 아 인 중생 수자에 착하리니, 이럴세 법(法)을 취함이 마땅치 못하며, 법(法)을 취함이 마땅치 못하니, 이 뜻인 까닭에 여래가 늘상 이르되, '너희를 비구가 내 설법이 뜻(意)으로 가잡(假)함(假)을 알면,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릴지어니, 하물며 비(非)이리오.'"

번역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체 대체 어떤 중생이 있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붓다가 말했다. "수보리야, 그리 단정하지

않아. 여래가 떠나고 난 후, '후(後) 500세'의 시대에라도 삶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수많은 삶을 거치며, 수많은 부처에게 나아가 선근을 심은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깨끗한 믿음에 이르러나. 수보리야, 여래는 다 보고 아신다. 이 중생들이 여래의 무량한 복덕을 얻을 것인들, 어찌서나. 이들 중생들은 더 이상 이상(我相) 중생상(衆生相) 그리고 수자상(壽者相) 등, 어떤 형태의 자의식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욕하면서 닦는다고 하든가, 불교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줄 안다. 불교가 '너는 없다'를 가르치면서 '나, 불교는 있다'고 했을 리가 없다. 지금 <금강경>은 바로 그 법(法)의 위협을 경고하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전권을 할애하고 있다. 진리가 자신의 이름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피비린내와 살상이 금전이나 지위를 두고 싸우는 것에 비할 수 없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고, 또 어느 특정한 철학이나 종교의 독점일 수도 없다. 너무나

다. 도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필요나 국면에 따라 몇몇일 수밖에 없다. 불교처럼 자기 경전 안에 이질적인 것들, 정반대되는 주장들까지 한 삼태기(擔)에 담고 있으면서, 태연 모른척하고 있는 종교는 흔치 않을 것이다. 당연히 불교 밖에도 그들의 삶에 풍요롭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 다른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또 그것들이 유용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교'만'의 진리는 없다! 불교가 가르치는 교설들은 다른 어디선가, 물론

다. 그러면서 불교의 독점함과 강점은 자신의 사유를 체현하는 열정의 강렬함과 그 수단의 정교함과 풍부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말에 전폭 동의한다. 그러나, 둘은 공유점이 많고, 서로 배울 곳이 많다. 실제 서구는 지금 불교를 배우는데 열심이다. 불교의 자살인 참선과 명상 등의 수련법을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프로그램을 수입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는, 특히 한국불교는 이 대화의 광장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만 '집거' 하려고 한다. 문을 닫고 있는 말한다. '불교의 심원한 깊이를 천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쫓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물질에 쫓기고, 이기심에 찌러져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근본 소식을 깨닫기에는 어렵 반 쏟아져 있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의 근저에는 불교의 최종 경계가 화두 풀이의 신비적인 돌파의 체현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불교, 이미 서양에도 있었다



상식적인 이 말을 그러나 어느 종교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교만이 어렵사리 자신의 가치를 상대화하고 타자의 가치를 승인해 주었다. 불교의 관용과 유연성은 바로 이 어려운 양보, 즉 타자 존재의 승인(認)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이미 서양에도 있었다
불교는 진리가 도구라는 생각이 철저하

춤 다른 개념과 어법, 맥락과 상황을 깔고 있지만, 실현되고 표명된 것이다. 이를테면, 반야부 연구의 독보적 인물인 콘즈(Edward Conze)는, 불교가 사람들이 짐작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비의적 진리를 독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교의 핵심적 교의는 이를테면 출이나 쇼렌하우어, 윌리엄 제임스가 훨씬 정교하게 익숙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필칭 깨달음이란, 한 순간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듯 저 다른 세상을 체현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번뇌와 망상으로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지속적 주시와 자각을 통해 치유되어 가는 '점진적 과정'이다. 그 목표는神通이 아니라 통행이며, 과정 또한 돈오(頓悟)가 아니라 점수(漸修)이다. 깨달음을 신비화하는 안 된다. 동양철학에는 무슨 거장한,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알면 우주를 맡아먹고, 일기에 일상의 누추함을 벗어던지고 비상할 '비밀의 권능'은 없다. 우리 모두는 각자 삶의 굴곡을 거치며, 작게 혹은 크게 삶을 배우고 있는 바, 그 속에서 각자 깨달음의 불씨들을 일깨워가고 있는 수행자들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